2024-04-19

Today's Chart

G7 성명과 트리플 약세 현상 진정

Economy Brief

[경제] 박상현 2122-9196 shpark@hi-ib.com

그림1. 외환시장 관련 G7 재무장관 공동성명을 고려할 때 일본 정부의 시장개입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는 판단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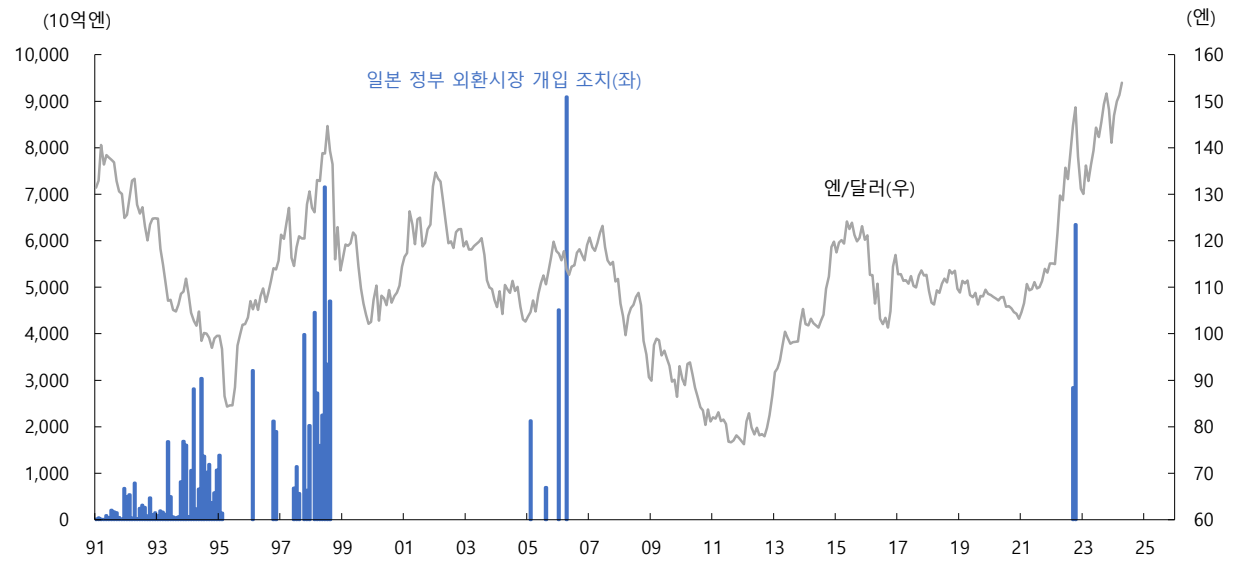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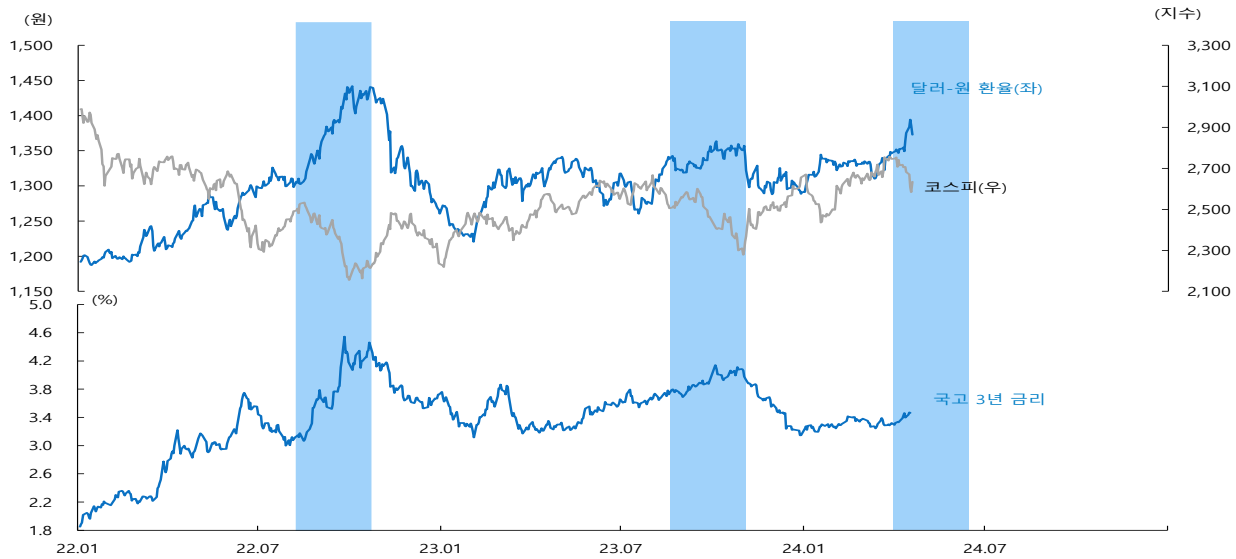


그림2. 22년 미 연준 금리인상 사이클 이후 발생했던 트리플 약세(원화-주가-채권가격 동반 하락) 국면 중 이번이 가장 미약하게 마무리될 여지가 있음



자료: Bloomberg, CEIC,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

■ 예상치 못했던 G7 재무장관 성명: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은 더욱 높아짐

- 미 연준의 금리인하 지연 및 중동 사태로 요동치던 외환시장이 다소 안정을 찾음. 무엇보다 예상치 못한 G7 재무장관의 외환시장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한 몫을 함. G7 재무장관은 "과도한 환율 움직임은 경제에 부정적" 이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함. 사실상 미국이 달러 추가 강세, 역으로 엔화 등 주요국 통화의 과도한 약세를 막는데 동참한 것은 다소 의외임
- 미국이 여타 G7 재무장관과 함께 외환시장관련 성명을 발표한데는 일본이 일정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됨. 스즈키 순이치 일본 재무상은 옐런 재무장관과 개별적으로 회담을 갖고 환시개입에 대한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
- 일본 입장에서 155엔에 육박하는 달러-엔 환율의 추가 상승, 즉 엔화의 추가 약세를 용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임. 슈퍼 엔저가 일본 경제와 주식시장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엔화 추가 약세가 초래할 부정적 영향도 무시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임
- 엔화 추가 약세 시 수입물가 상승 압력 확대와 더불어 내수 경기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큼. 가뜩이나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의 내수회복을 위한 임금 상승 독려 등의 노력이 슈퍼 엔저 가속화로 물거품이 될 수 있음. 더욱이 엔화의 추가 약세를 저지하기 위해 일본은행이 고육책으로 금리인상에 나설 경우 살아나던 일본 경기회복세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 일본 정부 부채 리스크마저 자극할 개연성이 높음
- 한편 G7 재무장관 성명으로 글로벌 외환시장이 다소 안정을 찾는 분위기지만 미 연준의 금리인하를 둘러싼 우려를 감안할 때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임. 특히, 달러-엔 환율의 경우 여전히 154엔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일본 정부의 시장개입 단행과 같은 추가 조치가 시행될 여지가 크다는 생각임. 미-일간 재무장관 회담에서 일본이 미국측에 시장개입을 사전에 통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
- 엔화를 중심으로 글로벌 외환시장이 중요한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다는 판단임

■ 달러-원 환율은 단기적 안정세를 회복할 듯: 트리플 약세 현상 진정

- 정부와 G7 재무장관의 구두개입과 더불어 우려했던 중동 지정학적 불안감이 일단 소강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달러-원 환율도 다소 안정을 찾을 것으로 기대함
- 더욱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이 현실화된다면 달러-엔 환율의 급락과 함께 달러-원 환율의 추가 하락압력으로 작용할 것임
- 물론 미 연준의 금리인하 시점 우려와 ECB의 6월 금리인하 가능성 그리고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유가 불안 등 잠재적인 달러 강세 요인이 남아 있어 달러-원 환율의 추세적 하락을 예상하기는 이른 시점임
- 그럼에도 불구하고 잇따라 불거졌던 대내외 악재가 일단 해소내지 소강국면에 접어들고 있어 달러-원 환율의 안정과 함께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이 다소 안정을 회복을 할 것임. '원화-주가-채권 가격 동반 하락' 현상, 즉 트리플 약세 현상이 일단 해소될 것임. 조금 긍정적으로 보면 이번 트리플 약세 현상이 확대될 리스크가 잠재해 있지만 경기 펀더멘탈과 약화되었지만 금리인하 기대감 등으로 2022년 미 연준 금리인상 사이클 이후 발생된 트리플 약세 중 상대적으로 큰 쇼크없이 진정될 여지가 있음

Compliance notice

·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-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.
·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(작성자 : 박상현)
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따라서,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,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.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.